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 또 잡음

서류심사 3위 꼴찌→면접심사 최고 점수 받아
사전 내정설 돌아 환경공단 내부 직원들 동요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캠프 인사를 이사장 후보로 낙점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부족과 각종 의혹이 제기돼 낙마한 데 이어 최근 재공모에서도 사전 내정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강렬 전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을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김 전 이사장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3명 중 꼴찌인 3위였으나, 면접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기준이 큰 틀에서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서류심사 점수 최하위 후보가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차 서류심사는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로 2차 면접심사 점수에 합산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별개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이사장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은 15년이 지난 일로,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비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 전 이사장의 광주환경공단 내정설은 서류심사 전부터 제기돼 광주환경공단 내부에서 동요가 일었다.

김 전 이사장이 몸담고 있던 시민생활환경회의가 운영하는 폐식용유 재활용 친환경비누공장을 광주환경공단의 하수처리장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김 전 이사장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광주환경공단 직원들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비누공장을 공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위험시설물 안전성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했다.

광주시는 시민생활환경회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 달 29일 환경공단에 비누공장 이전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공단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비누공장 이전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친환경비누공장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광주시가 좋은 취지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이전을 검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치고 조만간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상용(70) 전 국회의원을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했으나,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 부족, 아들 병역기피, 보은인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서은홍 기자

태극기에 새긴 해군의 다짐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사령관 김명수 소장) 승조원들이 강원 동해시 군항기지 내 함정에서 태극기에 새긴 해군의 다짐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허탕 친 인공강우 실험…"미세먼지 효과 확인 못해"

기상청·환경부, 인공강우 실험 결과 발표
"지상 부근 대기 건조…내륙 강우 감지 안돼"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역시 확인 못해"
"어려운 해상 실험에서 가능성 확인한 의미"

기상청과 환경부가 지난달 서해 인공강우 실험에서 유의미한 강우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27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25일 서해상에서 진행했던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을 통해 구름씨 살포 후 대기 중 구름 발달이 확인됐고 일부 섬에서 강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상 부근 대기가 건조해 내륙에서는 강우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관측 장비로 구름 내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큰 구름과 강우 입자의 수가 증가했다. 또 기상레이더를 통해서는 하층 구름이 발달하는 것이 탐지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에서는 강우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일부 섬(장산도) 지역에서는 2회 감지됐다"며 "구름씨 살포로 발달한 하층운에서 약하게 강우가 생성됐으나, 내륙은 지상 부근의 대기가 건조해 낙하하는 강우 입자가 증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인공강우 영향 예측 지역인 영광, 나주 등 내륙지역에서 강우가 관측되지 않음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실험 당일 시작 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께 목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바람(풍속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는 외부 공기 유입으로 오후 2시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관측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외부유입이 사전에 관측됐고 실험 시작 후에도 해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했다.

기상청은 "결론적으로 실험 기간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풍속 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그 이후 다시 외부공기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내륙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상 실험에서 인공강우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증우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만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을 해왔으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뉴시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신안 해상서 선박 화재…선장 등 2명 구조

운항하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을 항해하던 해군함정이 선장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오전 10시16분께 신안군 안좌도 동쪽 2.8㎞ 해상에서 목포선적 19t급 S호에서 불이났다.

한전 소속 선박으로 자라도 인근 해저케이블 점검을 위해 운항 중이던 S호에는 선장 박모(61)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다행히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검은 연기를 보고 달려 온 해군함정에 의해 구조됐다.

선장 박씨는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나자 자체진화에 나섰으나 불가하자 112를 경유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북항 파출소 연안구조정, 서해특구대, 헬기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선박은 선체가 불에 잘 타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 건조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날 오후 1시20분께 완전 진화됐다.

해경은 선장 박씨와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속버스에서 지갑 주워 가져간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다른 승객이 고속버스 좌석에 놓고 간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11분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 B(58·여)씨가 떨어뜨린 8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주운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했으며, 모든 승객이 내린 뒤 버스 안에 다시 들어가 B씨의 지갑을 주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값비싼 지갑을 보자 순간 욕심이 나 범행했다. 주운 지갑은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속버스 내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정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A씨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때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시내버스서 행패 뒤 경찰관 폭행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서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기사 B(49)씨를 유리병과 청소용구로 위협하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37)경사의 목을 1차례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B씨가 만류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간 뒤 유리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버스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 세우자, 차량 안에 있던 대걸레를 부러뜨려 B씨를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데 불만을 품고 C경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멱살 잡고 지구대서 난동 40대 입건

전북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제시의 한 지구대에서 B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점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A씨를 조사했으나 상점이 파손되지 않은 데다 다친 사람이 없어 A씨를 훈방 조처하려고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나를 잡아가라"며 스스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B경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